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 서거 26돐이 되는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우러러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 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인 김재룡내각총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우리 인민이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로 높이 모신 불세출의 대성인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은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어나는 강대하고 존엄높은 사회주의조선의 위상을 만천하에 떨쳐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시어 이 땅우에 자주강국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미증유의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자주시대의 개척자, 선도자이시다

행성에 끝없이 굽이치는 위인경모의 정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빛내이시어 과린많은 20세기를 미증유의 전설적기적으로 수놓으신 절세의

김일성주석의 가장 귀중한 유산-주체사상

《시대발전에서 거대한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시공간적한계를 가지지 않는 사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조선의 지도사상이며 세계자주화위업의 지도리념으로 되고있는 주체사상이다. 이 위대한 사상리론적재부는 인류를 위해 남기신 김일성주석의 귀중한 유산이다.》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포크》가 전한것처럼 주체사상이야말로 그 보편적진리성과 완벽성, 영원한 생명력으로 하여 인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공인된 지도사상이다.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에게 있어서 고귀한 지침으로 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상리론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로씨야인터넷신문 《브레타 메레판》은 이렇게 전하였다.

위인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다함없는 경의를 드리고 있다.

김일성주석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자주시대의 개척자, 선도자이시다.

일찌기 조선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신 그이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에 주체사상의 진리를 탐구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그 누구도 조선의 독립을 선사해줄 수 없다는 자주적신념을 지니시고 강고한 항일대전을 승리로 조국해방을 위하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었다.

에필트신문 《알 나쉬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주체사상의 창시는 지난날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 지배와 억압에 온갖 수난의 대상으로만 되어오던 피압박근로대중에게 운명개척의 길을 명시해준 력사적사변이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류는 수천년세월의 암흑을 깨

뜨리고 자주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력사무대에는 세계자주화의 도도한 흐름이 펼쳐지게 되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조선혁명을 이끄시는 실천투쟁속에서 창시하신 사상이라고 하면서 캄보디아신문 《노코르 톰 데일리》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은 백과사전적인 사상으로서 그 어느 시대

자주의 기치높이 조선혁명을 전진시키신분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원칙을 구현하시어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한평생을 격찬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뜨겁게 울려나오고있다.

베네수엘라의 인터넷홈페이지인 《엘 끌롬 데 라스 나세오네스》, 《세파라마 가지네》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일제의 군사적강점을 끌장내고 조선을 해방하시였으며 동방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민주주의국가를 창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의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나라의

에도 다 적용되는 영원한 《현재형》의 확설이라는것이 주체사상신봉자들의 견해이다.

국제적관점에서 광범히 연구보급되고있는 주체사상은 현시대의 가장 전파력이 강한 사상이다.

김일성주석의 유산인 주체사상은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자주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주체적인 사회주의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고 빛나게 관철되도록 하시였다.

아랍조선협회리사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투철한 자주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시어 그 어느 나라 식도 아닌 조선의 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는 건국로선을 제시하시였고 조선땅우에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일떠세우시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에필트신문 《알 미쓰리 아야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후 외세의 《세브》가일요를 단호히 배격하시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길을 밝혀주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자체의 힘으로 강력한 국방공업의 토대를 다지는 한편 조선인민군을 불멸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키도록 하시였다.

로씨야 정일봉명칭 울리아 늑스끄주 로조선협회 위원장은 이렇게 칭송하였다.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주체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훌륭히 건설되었으며 이는 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되었다.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전체 인민을 당의 투리에 묶어두어 위 부타치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뚫고헤쳐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향도하여왔다.

주체사상의 거대한 생활

력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붉은기가 내리워진 지난세기 말엽에 더 힘있게 파시되었다.

리비아 쏘블라국제친선구락부 총서기,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은 김일성주석

은 조선을 위대한 자주강국으로 전변시키신 결출한 위인이시다. 주체적립장을 변함없이 고수하신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혁명은 언제나 백승의 한길로만 전진할수 있었다고 찬양하였다.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바쳐진 고결한 한평생

《김일성주석은 반제투쟁의 기치를 추켜드시고 세계자주화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다.》(범아프리카운동 유간 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전인류가 끝없이 흠모하는 20세기 결출한 위인이시다.》(로모니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로씨야신문 《로씨스까야가제파》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정구군의 지원이나 국가적인 후방도 없이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시고 중국혁명을 적극 성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후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반제자주에 나아가는 나라와 인민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시였다.

세계자주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다.》(범아프리카운동 유간 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전인류가 끝없이 흠모하는 20세기 결출한 위인이시다.》(로모니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로씨야신문 《로씨스까야가제파》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정구군의 지원이나 국가적인 후방도 없이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시고 중국혁명을 적극 성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후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반제자주에 나아가는 나라와 인민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시였다.

《로씨야신문 《로씨스까야가제파》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정구군의 지원이나 국가적인 후방도 없이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시고 중국혁명을 적극 성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후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반제자주에 나아가는 나라와 인민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시였다.

본사기자